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신 성 수석연구위원 (seong-shin@bsfng.com)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sfng.com)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3.5%)보다는 소폭 증가하겠으나 경제활력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5년 중 조선업 및 관련 소재 부품 생산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경우 동남권 제조업 증가세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고 건설업은 적어도 금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2015년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력 제조업에서 해외수요 부진,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동남권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을 밀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정책이 지속되고 원유가격이 EIA 전망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등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소비자심리 호전,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상승 등으로 소비 촉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성장엔진 1/4만 작동중

2015년중 세계경제는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활발한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2010년 이후 회복기중 2%대 초반에 머물렀던 성장률이 내년중 3%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규모의 유로지역 경제는 2015년 중에도 금년과 비슷한 1% 내외의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현재 유로지역의 내수규모는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4% 정도 작은 수준이며 IMF에서는 지난 10월 유로지역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40%로 진단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해 온 중국경제의 성장세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신흥국 경제는 원자재 수출 신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하방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MF는 금융위기 이전 과다차입에 의한 투자로 성장해온 중국 등 신흥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0	2011	2012	2013	2014 ^e		2015 ^e	
					IMF (2014.10)	OECD (2014.11)	IMF (2014.10)	OECD (2014.11)
선진국	3.1	1.7	1.2	1.4	1.8	-	2.3	-
미국	2.5	1.6	2.3	2.2	2.2	2.2	3.1	3.1
유로	1.9	1.6	-0.7	-0.4	0.8	0.8	1.3	1.1
일본	4.7	-0.5	1.5	1.5	0.9	0.9	0.8	1.1
신흥국	7.5	6.2	5.1	4.7	4.4	-	5.0	-
중국	10.4	9.3	7.7	7.7	7.4	7.3	7.1	7.1
세계전체	5.4	4.1	3.4	3.3	3.3	3.3	3.8	3.7

자료 : IMF,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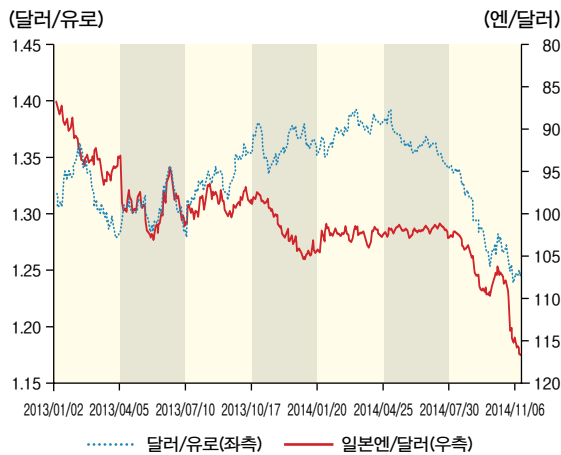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 방향에 비추어 미달러화 강세기조가 내년중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회복국면에서 점차 확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초팽창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정책을 지난 10월 종료하였으며 시장에서는 내년중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본원통화 증가목표를 종전 연간 60~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확대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미국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일본 엔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11월 25일 118.35엔을 기록하여 2007년 8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로화도 1.25달러를 하회하여 최근 2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및 내년중 금리인상 전망으로 미국 등 성장이 양호한 국가와 부진한 지역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0월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한 BoA-Merrill Lynch 서베이에서도 미국·영국 선호, 유로존·신흥국 회피, 현금성 자산 증가 등의 포지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에도 금리인상시기 전망, 일본 및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이동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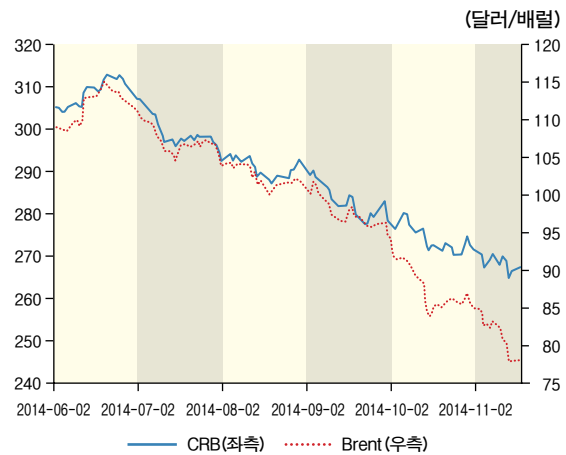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통화 긴축기조와 함께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원유, 금, 구리, 납, 옥수수, 소맥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중에도 달러강세·원자재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 한국은행

국제원자재가격지수 및 브렌트유 가격



자료 : 국제금융센터

201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4.0% 전망

2015년 국내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5%)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경제 활력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연초에 비해 금년 및 내년 중에도 성장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국내기관	2015		해외기관	2015	
	2014	2015		2014	2015
한국은행 (14.10월)	3.5	3.9	IMF (14.10월)	3.7	4.0
현대경제연구원 (14.10월)	3.6	3.6	해외 투자은행 (14.10월) ¹⁾	3.6	3.9
산업연구원 (14.11월)	3.5	3.7	OECD (14.11월)	3.5	3.8

주 : 1) 해외 투자은행은 은행별 전망치 평균, BNP Paribas(3.6, 3.9), Barclays Capital(3.7, 4.0), Citi(3.6, 3.8), Deutsche Bank(3.6, 3.8), Goldman Sachs(3.7, 3.8), Morgan Stanley(3.6, 4.1), Nomura(3.5, 4.0), ()내는 2014년과 2015년 전망치

2) ()내는 전망치 발표시기

자료 :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고용확대 및 주택경기 회복으로 인한 부의효과 (wealth effect)로 금년의 2.0%에서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중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호조, 정부의 SOC 예산확대 및 주택건설경기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년 수준의 증가세에 머물 전망이다.

수출은 중국 및 유로지역의 수요부진, 엔화대비 원화강세 등으로 연간 5.5%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840억달러에서 2015년 70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지출부문별 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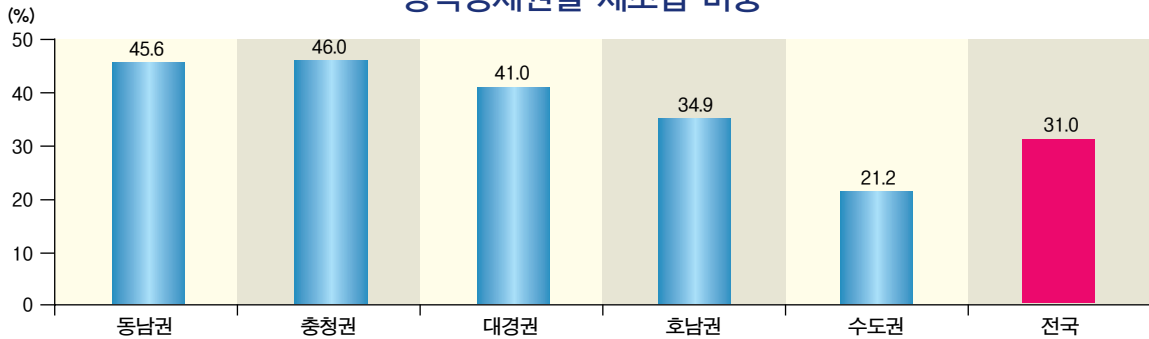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e	2015e
GDP	3.6	2.0	3.0	3.5	3.9
민간소비	2.3	1.7	2.0	2.0	3.5
설비투자	3.7	-1.9	-1.5	5.2	5.9
건설투자	-5.0	-2.2	6.7	1.9	3.3
상품수출	10.5	3.8	4.5	4.0	5.5
상품수입	8.7	1.5	1.2	2.7	5.7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제조업 신장세 둔화

2012년 명목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동남권의 제조업 비중은 45.6%에 달하고 있으며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지역경기는 제조업의 업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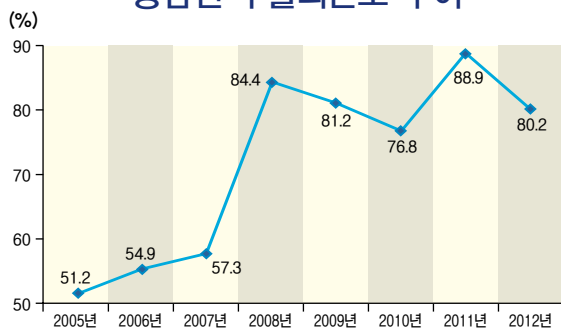
광역경제권별 제조업 비중



주 : 2012년 총부가가치(명목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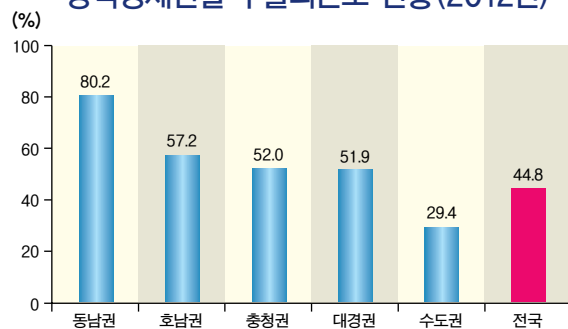
동남권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80.2%(2012년 기준)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수출의존도는 50%대, 수도권은 29.4%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이른다.¹⁾

동남권 수출의존도 추이



주 : 수출의존도 = 수출액/명목 GRDP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광역경제권별 수출의존도 현황(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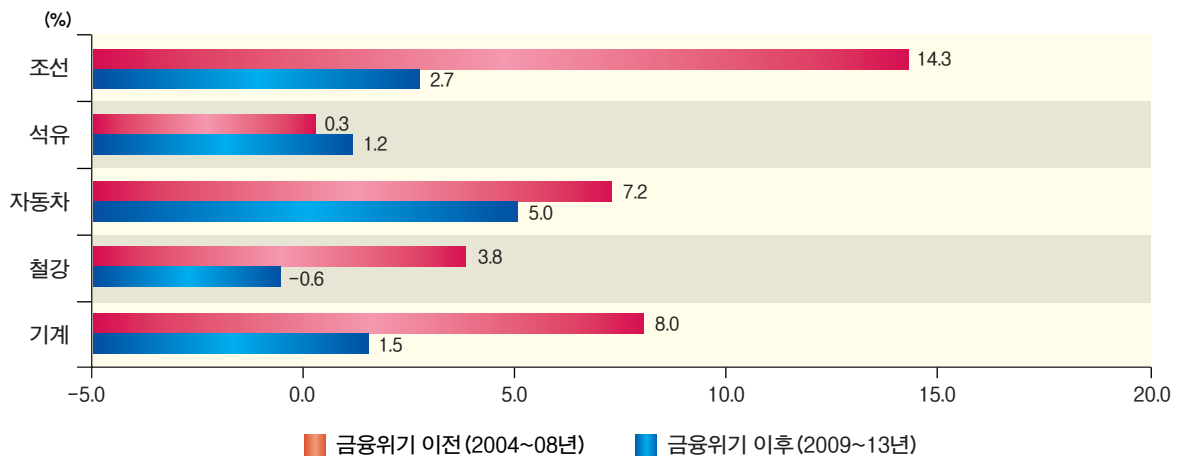


주 : 수출의존도 = 수출액/명목 GRDP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1)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대경권(대구, 경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2009~13년 중 동남권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2.7%로 전국 증가율(4.7%)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기간(2004~08년)의 5.1%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조선, 철강, 기계업종의 생산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동남권 5대 주요산업 생산 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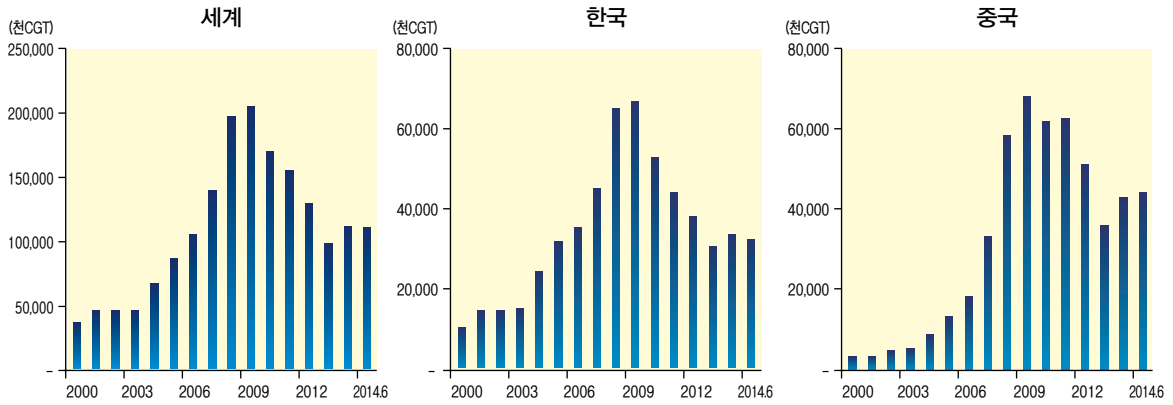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5년 주요 제조업종별 전망

조선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2003~07년 중 연평균 5,877만CGT에서 2008~13년 중 연평균 3,945만CGT로 32.9% 감소하였으며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도 같은 기간 중 3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업의 수주잔량도 2014년 6월말 현재 3,259만CGT로 2009년말 6,686만CG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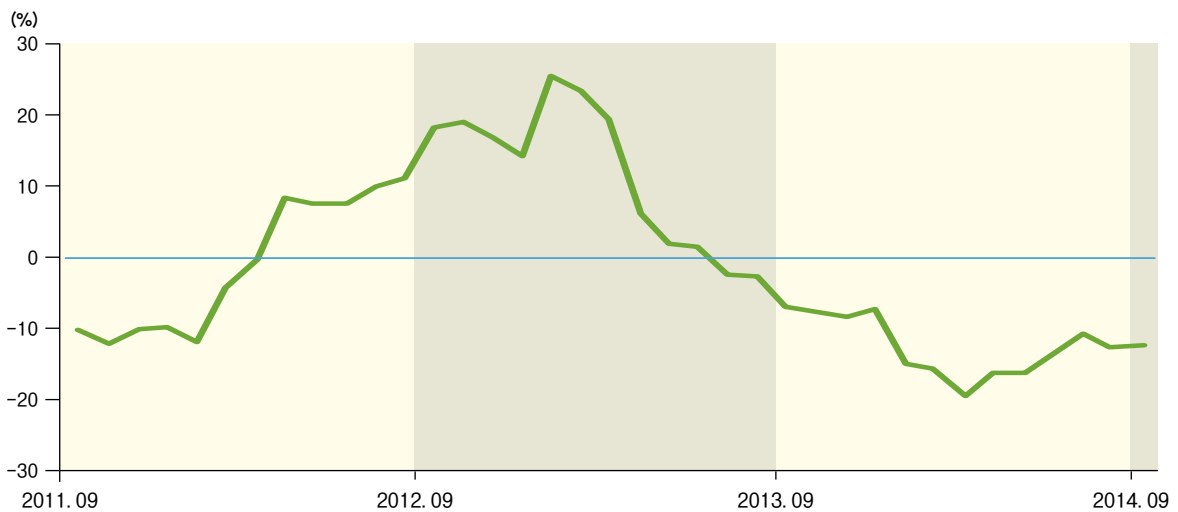
선박 수주잔량



자료 : Clarksons

선박건조량은 2013~14년중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폭 늘어난 수주량을 감안할 때 2015년 중 건조량은 금년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선박 생산 증가율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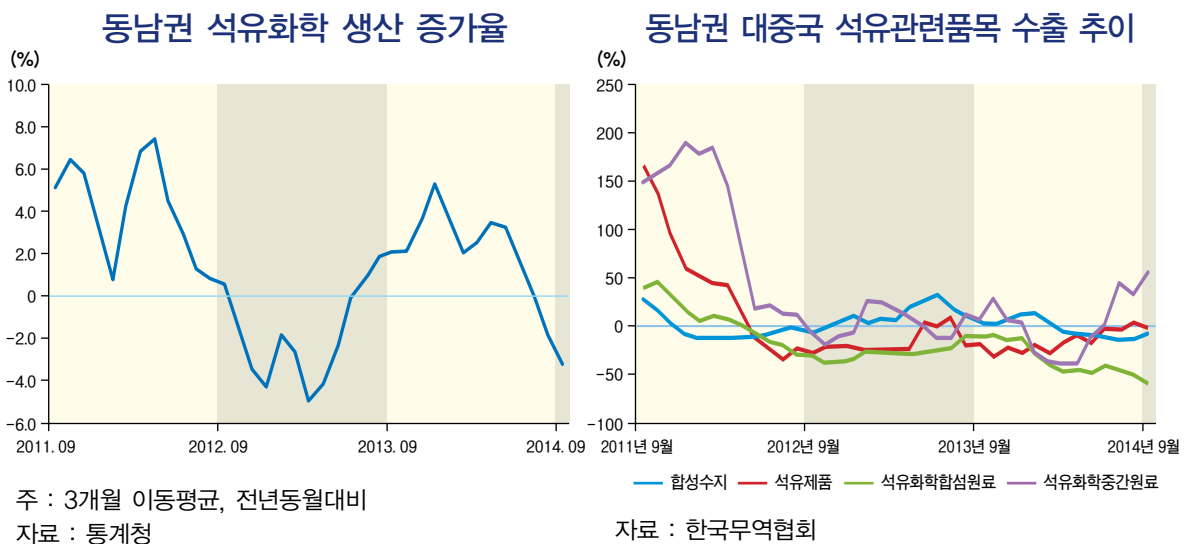
세계경제 대침체의 영향으로 교역규모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선박량의 초과공급 상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컨테이너선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선박량 과잉규모가 BS금융경영연구소 추정 36.7%, Danish Ship Finance 추정 24%에 달하고 있다. IMF의 중기 전망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2017년 이후에나 선박량과 교역량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박 수주량은 당분간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2016년 1월부터 질소산화물(NOx) 규제 적용 등 에코선 부문 신규 수요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셰일(Shale) 가스 수출 허용으로 LNG선 등에 대한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조선업은 현재의 예상보다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 및 석유화학

석유제품 생산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수요 증가로 금년들어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석유부문은 중국 경기 둔화, 엔저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와 재고손실로 인해 업황이 부진하다. 브렌트유 기준 6월 배럴당 111.8달러이던 유가는 10월 87.8달러로 4개월 만에 21.5%나 하락하였다. 2015년에도 주요 수출 지역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엔저로 인한 대일본 수출 부진 등으로 신장세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과 같은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예상외의 수요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석유화학 부문은 동남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용 PVC 등 합성수지 수요 하락 및 에틸렌의 중국 자급률 상승 등으로 성장이 제약될 전망이다. 중국석유화학협회는 에틸렌의 중국 자급률이 2013년 49% 수준에서 2015년 7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국내 자동차 산업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생산, 수출 모두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수출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들어 엔저 현상의 심화, 일부 업체의 부분 파업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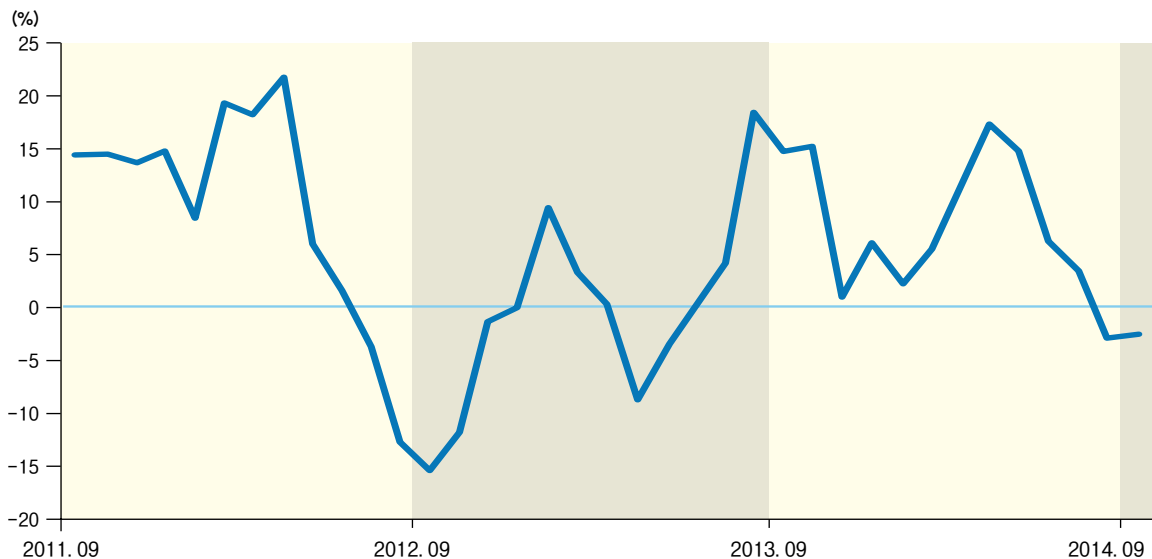
글로벌 신용평가사 S&P(2014.11.17)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자동차 판매대수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4%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은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 증대(+8% 예상)가 예상되고 미국 경제가 상승하고 있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 수요는 둔화되고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판매 둔화 리스크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009~13년 중 대미 자동차 수출은 연평균 16.0%, 자동차 부품은 연평균 12.8% 각각 늘어났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자동차는 연평균 15.0%, 자동차 부품은 33.2% 신장되었다.

이와 같이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의 주요시장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수요 위축 리스크(market risk)는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가격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연비기준 강화 등에 비추어 자동차 업계의 연비개선 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의 관련부품업체들이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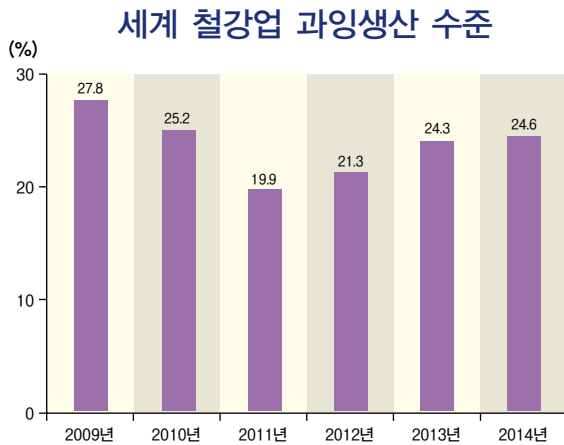
동남권 자동차 생산 증가율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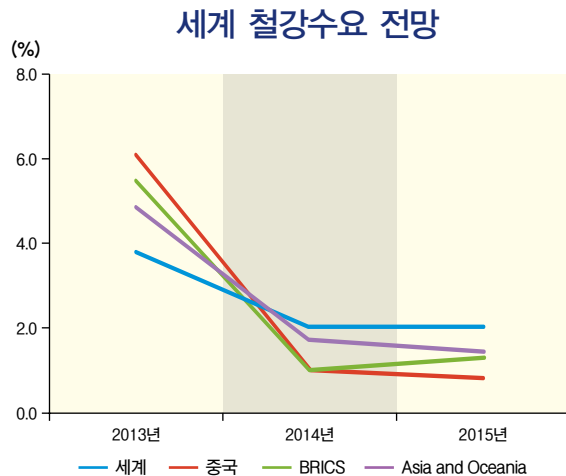
철강

중국의 급속한 생산량 증대로 전세계 철강업계의 공급초과가 2014년 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중국의 철강수요는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건설수요 감소로 올해 1%보다 낮은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세계 수요 증가율도 2013년 3.8%, 2014년 2.0%, 2015년 2.0%로 금년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 : 1) 2014년은 추정치
 2) 65개국(세계생산 99%를 차지) 기준
 3) 철강 과잉수준은
 조강생산능력과 조강생산량 차이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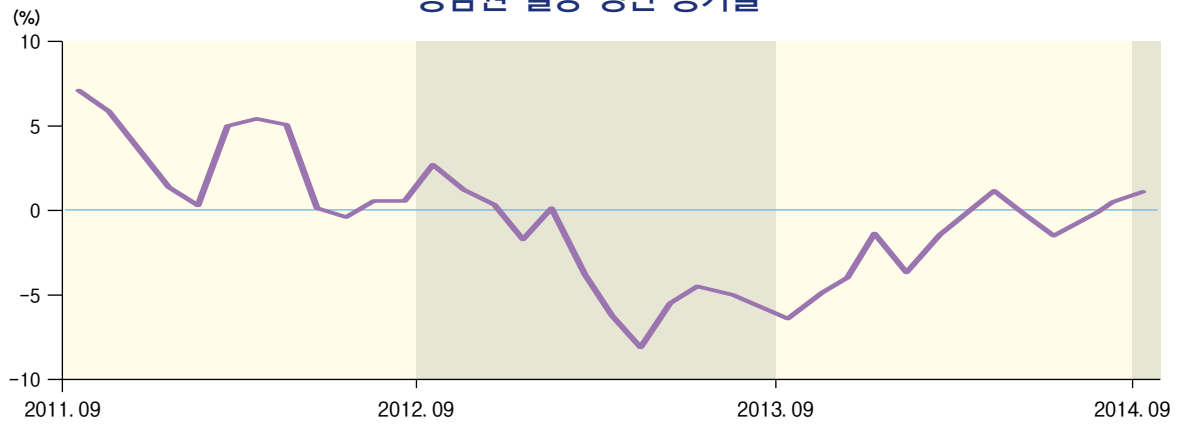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주 : 2014년, 2015년은 전망치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최근 국내전체 및 동남권 철강업 생산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미국 수출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동남권 철강업은 매출 상위 10대 기업 기준으로 수출 비중(33.6%)보다는 내수 비중(66.4%)이 높은 구조여서 개선 폭이 크지 않았다. 동남권 철강기업의 주요 생산제품은 선재, 철근, 냉연강판으로 조선, 건설, 기계 부문이 수요처이다. 전방산업의 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국의 저가물량 공급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제품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남권 철강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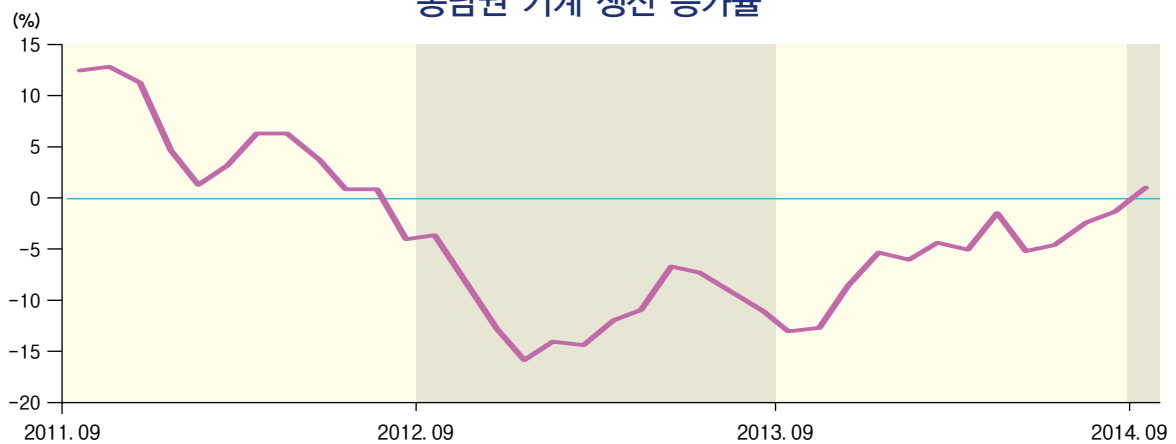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일반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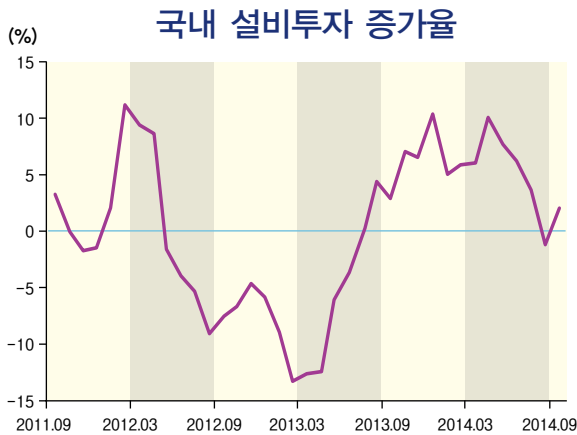
기계업은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 부진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기 둔화 및 엔저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 발표(2014.1월)에 따르면 건설광산기계의 일본과 수출경합도(2012년 기준)는 미국시장 83.6, 중국시장 87.5, 금속공작기계는 미국시장 66.6, 중국시장 70.0으로 분석되어 기계업은 엔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기계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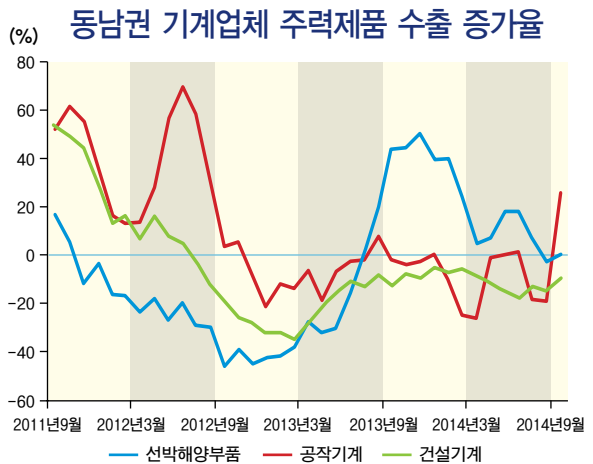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공작기계, 건설기계 및 엔진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동남권 기계업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과 주요시장인 중국 및 미국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공작기계는 미국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비투자 회복세 부진 및 중국의 과잉설비 등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기계는 중국 주택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엔진부품도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부진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 엔화의 향방도 동남권 기계업의 업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1)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년 중 동남권 경제성장률, 금년보다 다소 높아지나 전국 평균을 하회할 전망

동남권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 및 관련 소재 부품 생산이 2015년 중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경우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는 금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증대, 유가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 상승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SOC 예산 증액 등으로 적어도 금년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5년 동남권의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력 제조업에서 해외수요 부진,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 및 울산 지역의 성장 하방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원유가는 미국 원유생산량 증가, 리비아 원유생산 재개, 수요 부진 등으로 금년 11월 13일 이후 배럴당 80달러(브렌트유 기준)를 밑돌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2015년 중 연평균 원유가(브렌트유 기준)를 배럴당 83.42달러로 금년(101.04달러)에 비해 17.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nancial Times(2014.11.20)에 따르면 원유가 20% 하락으로 미국에서는 연간 800억 달러(미국 소비의 0.7%)의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IMF의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소비자심리 요인까지 감안하면 세계경제는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평균 유가가 IMF의 전망치(-3.3%)와 달리 EIA 전망대로 17.4% 하락할 경우 세계경제는 약 1% 정도 높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지난 11월 21일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정책이 지속되고 원유가격이 EIA 전망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등 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소비자심리 호전,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상승 등으로 소비 촉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전 폐쇄로 막대한 원유 수입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경제가 원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크게 반등할 경우 엔화 약세 폭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동남권 주요 제조업의 시장 리스크와 가격경쟁 리스크는 완화되고 경제성장세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GREAT PLACE TO WORK Best companies to work for 2014 Korea

GWP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5년 연속 대상 수상

신뢰부문
대상 수상

BS금융그룹
부산은행

BS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S금융지주(www.bsin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S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sfng.com

BS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S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